

단국대학교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인문계열 문제 (오후)

전 형 명	논술우수자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 명	

☑ 수험생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120분이며, 고사 종료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중도퇴실할 경우 결사처리)
2. 문제번호와 답안번호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됨)
3. 문제별 답안작성란을 벗어나지 않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4. 답안 작성 시 인적사항 등 답안과 관련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0점처리 됩니다.
5. 답안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연필, 샤프, 빨간색이나 파란색 필기구 사용금지)
6. 답안지는 교체가 불가하오니 원고지 교정부호 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7. 연습지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A4용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8.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비닐백에 넣어 좌석 아래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사 중에 벨소리, 진동, 알람 등의 소리가 울릴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는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문제 1] 다음 제시문을 읽고 주어진 물음에 답하십시오. (30점)

- 1) [가]에서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 하나를 찾고, 그 단어를 이용하여 [가]의 내용을 요약하십시오. (200자 내외) (10점)
- 2) [가]에서 찾은 단어를 이용하여 [나]를 요약하고 [다]를 설명하십시오. (400자 내외) (20점)

[가] 오랜 기간 세상을 적대적으로 보는 사람에게 세상이 지옥과도 같이 보일 수 있는 것처럼, 수십 년 그와 같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글을 읽는 판사 역시 인간과 세계를 그와 같이 보게 되고 그와 같은 잣대로 평가하게 될 수 있다. 인간의 말과 글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다.

판사가 된 후 대학 때 은사이신 선생님을 찾아뵈었을 때, 선생님께서 “세상은 원래 탁한 연못과 같은 것이고 탁한 것이 꼭 나쁜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하지만 탁한 것만 고이면 썩게 되므로 그 속에 끊임없이 맑은 물을 흘려보내는 작은 웅달샘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난다. 아마도 선생님께서는 제자인 내가 그런 작은 웅달샘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 같다.

말씀을 듣고 난 후 나는 내 머릿속에 20여 년간 쌓인 탁한 말과 글을 정화해 줄 웅달샘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도서관에 가서 법서가 아닌 수필, 소설, 시집을 손에서 떼지 않으려고 애를 써 왔다.

내 머리, 마음속에서 증오와 비난, 탐욕으로 물든 말과 글을 비워 내고 아름다움, 감동과 진실의 말과 글을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채울 수 있다면, 당사자들의 말과 글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조금 더 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면 그들에 대한 공감의 폭은 더 넓어질 것이고, 약간의 운이 더해진다면 그 속에서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얼마 전 재판에서 당사자가 제발 자신의 말을 두 시간만 들어 달라고 했던 기억이 난다. 시간관계상 내가 속한 재판부는 30분간 발언할 기회를 주기로 하였다. 과연 두 시간 동안 할 말이 있을지, 재판부가 꼭 들어야 할 내용인지는 현재로는 알 수 없고, 시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 두 시간 발언을 신청했다가 30분으로 시간이 제한된 당사자가 소송에서 패소하게 된다면, 그는 원인이 재판부가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경청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조금 더 여유 있게 당사자의 말과 글을 차분하고 꼼꼼하게 듣고 읽을 수 있다면, 더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고, 법원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도 더 쌓이지 않을까.

출처 : 민형식 외,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출제진 재구성)

[나] “너는 할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 대해, 특히 내가 취하고 있는 입장에 대단히 불만이지?”

“그럴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할아버지에 대한 처지를 이해하면서도 그 논리를 그대로 저와 연결시키고 싶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기특하구나. 그러니까 너만이라도 할아버지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보이겠다는 거냐 뭐냐. 지금까지의 네 행동을 보면 그런 추측을 가능케 하더라만.”

“그것도 맞지 않는 말이에요. 도대체 할아버지와 저와는 갈등이 있었어야 말이지요. 처음부터 갈등이 없었는데 화해의 제스처를 보이고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할아버지와 갈등이 있었다면, 그건 아버지의 몫이지 저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전 세대끼리의 갈등이 다음 세대에서 쾌적한 만남으로 이어진다면, 그건 환영할 만한 일이고, 그게 또 역사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뭐야. 이놈의 자식. 네가 나를 훈계하는 거야!”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아버지의 손바닥이 성규의 볼때기를 후려쳤다. 옆에 있던 어머니의 헛소리가 그의 뺨에 달라붙었다.

“또박또박 말대답하는 것 좀 봐.”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버지의 생각 속으로만 저를 챙겨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규는 얻어맞은 자리를 어루만지지도 않고, 되레 풀죽은 목소리가 되었다.

“네가 알긴 뭘 알아. 네가 내 속을 어떻게 알아.”

“그런 말씀은 이제 그만 좀 하셨으면 해요. 안팎에서 듣는 그 말에 물릴 지경이거든요. 너는 아직 모른다. 너도 내 나이가 되어 봐라……. 고깝게 듣지 마세요. 그때 가서 그 뜻을 알지언정, 지금부터 제 사고와 행동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할아버지를 우리 모임에 초청한 사실을 후회하지 않을뿐더러,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심리적으로 격리시키려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해하려는 모순을 저도 이해합니다. 노상 이기적인 현실에의 집착이 그걸 누르는 데 대한, 어쩔 수 없는 생활인의 감각까지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고 건방지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 나이는 또 할아버지의 생애를 이해합니다. 복으로 상징되는 할아버지의 삶을 놓고, 아버지와 제가 감정적으로 갈라서는 걸 비극의 차원에서 파악할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의 광대 기질에 철저하여 가족을 버린 건 비난받아야 할 일이나, 예술의 이름으로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나름대로의 예술을 완성했니?”

아버지의 입가에 냉소가 머물렀다.

“그건 인식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할아버지에게서 복을 뺀 건 할아버지의 한(恨)을 배가시키고, 생의 마지막 의지를 짓밟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생각만은 갖고 있습니다.”

출처 : 한철우 외, 『고등학교 문학』

[다] 어른은 숫자를 좋아한다. 새로 사귄 친구 이야기를 할 때면 그들은 가장 긴요한 것은 물어보는 법이 없다.

“목소리는 어떠니? 좋아하는 놀이는 뭐니? 나비를 수집하니?”라는 말을 그들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나이는 몇이지? 형제는 몇이고? 체중은? 아버지 수입은 얼마니?”라고 묻는다. 그제야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 줄로 생각할 것이다. 어른들에게 “창턱에는 제라늄 화분이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가 있는 분홍빛의 벽돌집을 보았어요.”라고 말하면 어떤 집인지 상상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그들에게는 “10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어요.”라고 말해야만 한다. 그래야 “아, 참 좋은 집이구나!”하고 소리칠 것이다.

그래서 당신이 말하기를, “어린 왕자가 멋지고, 웃음기가 있고, 양을 가지고 싶어 했다는 사실이 그가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증거야. 어떤 이가 양을 갖고 싶어 한다면 그 역시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지.”라고 말하면 그들은 어깨를 으쓱하며 여러분을 어린아이로 취급할 것이다.

……(종락)……

그들을 탓해서는 안 된다. 어린이는 어른을 항상 너그럽게 대해야 하니까.

인생을 이해하는 사람은 숫자 따위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동화처럼 시작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옛날에 저보다 좀 더 클까 말까 한 별에 사는 어린 왕자가 있었는데 그는 친구를 사귀고 싶었어요…….”

인생을 이해하는 사람에겐 진정성이 훨씬 더 느껴질 것이다.

사람들이 이 책을 건성으로 읽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추억을 꺼낼라치면 깊은 슬픔에 잠기곤 한다. 친구가 양과 함께 떠나가 버린 지도 어언 여섯 해가 지났다. 여기서 그를 묘사해보려고 애쓰는 이유는 그를 잊지 않기 위해서다. 친구를 잊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니까. 누구나 친구를 사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를 잊으면 나 역시 숫자밖에는 흥미가 없는 어른과 같은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

출처 :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

[문제 2] [가]와 [나]를 활용하여 [다]를 설명하고, [가]와 [나] 각각의 관점에서 [라]에 대한 평가를 논술하십시오. (600자 내외) (30점)

[가] 스토아학파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삶의 목적은 행복에 있고, 행복한 삶은 이성을 따르는 덕 있는 삶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자연에 따르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주장하였다.

스토아학파에 따르면, 이 세계는 질서 있는 하나의 전체이고, 신적인 이성(理性, logos)은 이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지배한다. 그래서 신, 우주, 자연, 인간과 같은 세계 안의 모든 것은 이성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성의 법칙을 통해 구체화된다. 또 세계 안의 모든 일은 이성의 인과 법칙에 따라 필연적으로 일어나며, 그것은 우리에게 운명으로 다가온다. 그 운명은 신적인 것이자 이성적인 것이며,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것이다. 스토아학파는 신적인 이성의 법칙, 필연적인 자연의 법칙*에 따르는 삶을 행복한 삶이라고 보았다.

……(중략)……

스토아학파에 따르면, 우리를 둘러싼 외적인 것들은 이미 이성의 법칙에 따라 결정되어 있으므로, 우리의 의지대로 바꿀 수 없다. 그리고 쾌락, 아름다움, 부, 명예나 이와 반대되는 고통, 추함, 가난, 나쁜 평판 등은 모두 우리의 행복과 무관한 것이므로, 그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좌우되지 말아야 한다고 보았다.

……(중략)……

스토아학파에 따르면, 행복은 오직 덕 있는 삶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다. 그들은 지혜, 절제, 용기, 정의와 같은 덕이 유일한 선이요, 행복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선이나 덕, 행복과 무관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동요하게 되는데, 이는 정념이 이성을 가리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자연의 법칙(자연법) : 인간 본성에 기초하여 우주·자연이나 인간·사회를 지배하는 보편적이고 영구적인 정의(正義)의 법을 말한다. 실정법이나 역사적 제도를 비판하는 원리,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정당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출처 : 류지한 외,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스토아학파에 따르면, 인간은 모두 하나의 이성 법칙 아래 있으며 하나의 이성적 체제와 법률에 귀속된다. 이성은 신과 우주의 본성이자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 평등하며 서로가 형제자매이다. 따라서 그들은 자기애를 넘어 가족, 친구, 동료 시민, 나아가 인류 전체를 포용하고 사랑하라고 명령한다. 그리고 자연법이 인간의 윤리적 삶의 근거가 되는 모든 세계, 모든 국가의 실정법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출처 : 황인표 외,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나] 실용주의는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유용한 지식을 강조하였다. 또한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이 변화하면 지식과 도덕도 새롭게 정의되고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략)……

듀이는 실용주의를 사회적·정치적·도덕적 영역에까지 확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환경과 상호작용 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문제 상황에 직면한다. 이때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경험이 축적되어 이론, 학문 등의 지식이 형성된다. 그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이 지식을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수단, 즉 도구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의 사상을 도구주의라고 불렀다.

도구주의 입장에서 듀이는 문제 상황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지성을 통한 탐구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보았다. 여기서 말하는 지성은 근대 과학이 보여 준 실험적이며 실천적인 지적 태도를 일컫는다. 듀이는 지성적인 탐구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밝히고 그것을 교정하려는 노력을 할 때, 문제 상황을 개선하고 사회의 성장과 진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그는 지성적인 방식의 문제 해결을 보장하는 정치 제도로써 민주주의를 강조하였으며, 창조적 지성을 갖춘 민주적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라고 보았다.

또한 듀이는 도구주의적 관점에서 도덕이나 윤리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이며, 인간도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종락)……

듀이에 따르면 어떠한 도덕적 가치나 지식은 유용한 결과가 예상되는 일종의 가설이므로 언제든지 수정되고 재구성될 수 있다. 따라서 불변하는 고정적 진리나 지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도덕적 인간도 고정 불변하는 최고선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며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지성을 발휘하여 옳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보았다.

출처 : 정창우 외,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다] 신성불가침의 주권을 존중하고 개입하면 안 되는 것일까? 인권을 지키는 것은 국제 사회의 책임이니 강제로라도 개입해야 옳을까? 주권 보장과 개입의 문제는 해묵은 딜레마다. 무엇보다 국제 사회의 개입을 1648년 베스트팔렌조약 이후 확립된 국제 질서의 핵심, 곧 주권에 대한 침해로 여기는 거부감이 크다. 식민 지배를 당한 아프리카나 아시아 국가들의 거부감이 큰 것은 당연하다. 제2차 세계대전 뒤 평화와 안보를 위해 설립된 유엔도 주권을 강조한다. 유엔 헌장 제2조 제7항은 “본질적으로 개별 국가의 국내 사법권에 포함되는 문제에 유엔이 개입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인권 유린, 기아, 내전 등으로 개입이 거론되는 상당수 국가는 정권 그 자체가 원인이다. 이 때문에 인권을 신성불가침한 주권에서 분리하고, 주권보다 우위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2005년 9월에는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원칙이 채택되었다. “집단 학살, 전쟁 범죄, 인종청소, 비인도적 범죄를 해당 국가가 명백히 보호하지 않을 경우” 국제 사회가 보호할 공동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주권을 침해하는 ‘개입’이 아니라 인권을 지키는 국제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출처 : 『한겨레』, 2008. 7. 2.

유엔 평화유지군은 냉전이 끝나면서 유엔의 핵심 기능으로 자리 잡았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을 둘러싼 중동 분쟁을 감시하는 임시 군사감시단으로 시작된 평화유지군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동서 양 진영으로 분열돼 대립하던 냉전 시대에는 정전과 철군 감시 등 제한된 기능만 맡았다.

1990년대 냉전이 사라지자 평화유지활동에 붓물이 터졌다. 소수민족의 독립 움직임과 내전이 곳곳에서 벌어졌고, 대량 학살과 인종청소 등 비극을 막아내기 위해서 유엔은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활동 분야도 군사 부문을 넘어 인도주의 구호 활동, 경제 개발, 정치·사법 영역까지 확대됐다. 사실상 유엔의 모든 활동은 평화유지활동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캄보디아, 모잠비크,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콩고, 엘살바도르, 동티모르 등은 유엔이 평화를 유지하는 데 성과를 거둔 나라들이다. 동티모르에서는 독립 정부 수립을 지원했고, 모잠비크에서는 9만 명을 무장 해제시켰으며, 라이베리아에서는 내전과 군사독재 이후 자유 선거를 치를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출처 : 『한겨레』, 2007. 1. 2.

[라]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군인이 사회 혼란을 빌미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다. 이들은 국가 재건 최고 회의를 설치하여 군정을 실시하였다. 군사 정부는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비판적인 언론을 탄압하였으며 대통령 중심제로 헌법을 개정하여, 박정희가 제5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제6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박정희는 장기 집권을 위해 대통령의 3선을 허용하도록 헌법을 고치고 제7대 대통령이 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1972년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였다. 그리고 유신 헌법을 제정하였는데, 이 헌법에서는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하고, 횟수에 제한 없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 국회의원 3분의 1 추천권, 긴급 조치권을 부여하였다.

긴급 조치권은 대통령의 행정 명령만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무제한 제약할 수 있는 초헌법적인 권한이다. 박정희 정부는 아홉 차례에 걸쳐 긴급 조치를 발동하였다. 특히 긴급 조치 제9호가 1975년부터 1979년까지 계속되면서 수많은 사람이 고문을 당하고 연인원 800여 명에 이르는 학생과 지식인이 구속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장면 정부의 경제 개발 계획을 수정하여 1962년부터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다.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공업화와 자립 경제를 구축하는 기초를 다지기 위해 수출 산업을 육성하고, 기간 산업과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산업 구조를 근대화하고 자립 경제를 확립하고자 경공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기초 산업의 개발과 철강·화학·기계 공업의 육성에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에는 한·일 기본 조약을 체결하고 베트남에 군대를 파병함에 따라 인력 및 상품의 수출과 기업의 해외 진출이 더욱 활발해졌다. 같은 기간 수출이 늘면서 경제도 빠르게 성장하였다.

제3·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고, 자력으로 성장할 산업 구조를 확립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박정희 정부는 철강·금속·조선·기계·전자·화학 공업을 전략 업종으로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하였다. 이에 따라 수출을 주도하는 품목이 경공업·가공 무역 제품에서 중화학 공업 제품으로 바뀌었다.

1973년 제1차 석유파동*이 일어났지만, 한국은 중동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위기를 극복하였다. 그 결과 1977년 10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였고, 중화학 공업의 비중이 공업 생산의 55%를 넘어섰다. 이로써 가난을 상징하는 보릿고개*가 사라지고 ‘한강의 기적’이라 일컫는 경제 발전을 이루어 냈다.

* 석유파동 : 1973~1974년, 1978~1979년 두 차례에 걸친 석유 공급 부족으로 석유 가격이 폭등하여 세계 경제가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은 사건.

* 보릿고개 : 식량이 떨어져 햇보리가 나올 때까지 생활이 몹시 힘든 기간.

출처 : 신주백 외, 『고등학교 한국사』(출제진 재구성)

[문제 3] [가]를 활용하여, [나]와 [다]를 연관 지어 설명하고 [라]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서술하시오. (600자 내외) (40점)

[가] 누구나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꿈꿀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인간의 삶에서 갈등은 불가피한 것이다. 작게는 개인과 개인 간 갈등에서부터, 크게는 국제적인 갈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갈등이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한다.

그렇다면 갈등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 대개의 경우 무한한 인간의 욕망에 비해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원이나 기회가 제한되어,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추구하는 가치관이나 신념의 차이 등으로 인해 현대 사회에서 갈등의 양상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 갈등으로 심화되고 있다.

사회 갈등이 빈발하는 것은 정치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치적으로는 권위주의 체제가 종식되었고, 시민 사회의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집단적으로 다양한 이익이 표출되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과 생활 방식 속에서 양극화와 경쟁의 심화가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현대 사회에 당면한 사회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갈등의 근본적 원인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의 충돌에 있으므로 다양한 법적, 정치적, 경제적 해결책을 통해 이를 평화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윤리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개인적 측면에서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다양성의 가치를 이해하고 대화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다음 사회적 측면에서는 다양한 이해 집단 간 대화와 타협, 협상과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사회 갈등이 해결되고 사회 통합으로 나아가면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절감되며, 서로 신뢰하고 상생하는 사회적 자본이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은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와 소통에 기반을 둔 시민 의식의 발달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출처 : 차우규 외,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출제진 재구성)

[나] ◆ 세대 구분 및 연대별 주요 사건

구분	전통 세대	베이비붐 세대	X세대	밀레니얼 세대	Z세대
출생 연도	1940~1954년	1955~1964년	1965~1979년	1980~2000년	2001~2010년

세대	시기	삶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건
전통 세대	~1959년	- 1945년 해방, 미 군정 실시 - 1950년 한국전쟁
	1960년대	- 1960년 3·15 부정선거, 4·19 혁명, 5·16 군사 정변 - 1962~1969년 경제개발계획
베이비붐 세대	1970년대	- 1970년 새마을운동 - 1972년 유신 체제
	1980년대	-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전두환 정권 출범 -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1/1), 베를린 장벽 붕괴
X세대	1990년대	- 1991년 소련 붕괴(냉전 종식, 12/25) - 1994년 인터넷 도입(6/2), 김일성 사망(7/8), 성수대교 붕괴(10/21) -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6/9), 1997년 외환 위기, 1999년 제1연평해전(6/16)
	2000년~	- 2002년 한일 월드컵, 제2연평해전(6/29), 2007년 아이폰 출시(6/29) - 2008년 금융 위기(저성장 국면 시작), 2009년 스마트폰 도입(11/28) - 2010년 천안함 침몰/연평도 포격,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건(4/16) -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밀레니얼 세대 / Z세대		

출처 : 허두영, 『세대 분석 사전』

◆ 과학기술 발전

세대	시기	성과	특징
전통 세대	~ 1959년	공병우 타자기 개발	기계화 (1차 산업혁명)
베이비붐 세대	1960년대	배추 품종 개발, 나일론 생산기술, 화학비료 생산기술 개발	대량생산 (2차 산업혁명)
	1970년대	국산차 포니, 통일버 개발	
X세대	1980년대	전자식 전화교환기 TDX-1 상용화, 한탄바이러스 백신, DRAM 메모리 반도체 개발	지식정보 (3차 산업혁명)
밀레니얼 세대 / Z세대	1990년대	우리별 인공위성 제작,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기술 상용화, 한국형 표준 원전 설계기술 확보	4차 산업혁명*
	2000년 ~	글로벌 신약 팩티브, 인간형 휴머노이드(휴보), 초음속 고등훈련기(T-50) 개발	

* 4차 산업혁명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

출처 : 허두영, 『세대 분석 사전』(출제진 재구성)

기존의 사회가 2차 산업 중심의 산업 사회였다면, 정보 사회에서는 서비스업, 첨단 산업 등의 3차 산업이 크게 성장하게 된다. 따라서 부가 가치의 원천 역시 산업 사회의 자본에서 지식 및 정보로 이동하게 되며 지식과 정보를 다루는 직업의 중요성이 증대된다.

또한 정보 사회의 변동 속도가 빠른 만큼 외부의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기 위해 기존의 관료제 조직에서는 탈관료제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생산 방식 역시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에서 벗어나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을 추구하게 된다. 이는 과거에 비해 개성을 중시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욕구 충족에 기여한다.

한편 텔레비전이나 신문과 같은 일방향적 매체에서 벗어나 인터넷과 같은 쌍방향적 매체가 발달하게 되고, 이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은 더욱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의 발달은 재택근무처럼 시공간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우리 삶을 크게 바꾸어 놓기도 한다.

출처 : 김영순 외, 『고등학교 사회·문화』

◆ 연령에 따른 디지털 역량의 차이

(단위: 점, %)

구분		점수 (100점 환산)		고령층 수준*(b/a*100)
		전체(a)	고령층(b)	
디지털 기술 사용 능력	기기 이용	64	43	67
	서비스 이용	65	45	69
디지털 정보 이해도	비관적 정보 이해	60	48	80
	미디어 이해	67	58	87

* 고령층 수준 : 전체 시민의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전체 시민 대비 고령층(65세 이상)의 역량 수준.

출처 : 『경향신문』, 2022. 5. 16.

◆ 세대원수별 세대수

(단위: 천 세대)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인세대	6,737	6,878	7,050	7,243	7,447	7,725	8,086	8,489	9,063	9,462
2인세대	4,022	4,158	4,298	4,434	4,569	4,735	4,929	5,129	5,404	5,614
3인세대	3,749	3,795	3,840	3,886	3,927	3,959	3,984	4,006	4,012	3,999
4인세대 이상	5,704	5,625	5,537	5,448	5,351	5,213	5,044	4,858	4,614	4,399

출처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통계연보』(출제진 재구성)

[다] ◆ 세대별 주관적 정치 성향 인식

(단위: %)

정치 성향	40년대생	50년대생	60년대생	70년대생	80년대생	90년대생	전체평균
진보*	16	15	25	34	33	23	25
중도*	35	45	43	40	38	42	41
보수*	49	40	32	26	30	35	34

* 진보 : 전통적인 것에 안주하거나 만족하지 않고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사회적·정치적 변화나 발전을 추구하는 성향.

* 중도 : 진보와 보수의 중간 정도의 성향.

* 보수 :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재래의 풍습이나 전통적인 것을 선호하며 지키려고 하는 성향.

출처 : 배진석, 『EAI 대선 패널 조사』

◆ 연령에 따른 결혼에 대한 견해 차이

(단위: %)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반드시 해야 한다	3.5	9.4	10.5	11.0	15.4	34.4
하는 것이 좋다	26.7	29.2	30.0	36.2	40.4	38.3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56.6	48.2	50.3	46.6	39.2	22.3
하지 않는 것이 좋다	3.6	5.3	3.9	3.2	1.6	2.6
하지 말아야 한다	1.0	1.2	1.4	0.6	0.5	0.2
잘 모르겠다	8.6	6.7	3.8	2.5	2.9	2.3

출처 : 『충남일보』, 2022. 9. 28.

◆ 세대 간 소통 인식

(단위: %)

구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루어지고 있다		
				약간	매우 잘	소계
전체		10	46	38	6	44
성별	남성	12	52	33	3	37
	여성	10	50	34	4	39
연령별	30대 미만	15	52	30	2	33
	30대	11	52	32	4	36
	40대	9	48	38	5	43
	50대	10	52	33	4	37
	60대	9	52	34	5	39

출처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17 사회통합실태조사』

[라] 40대 초반 직장맘 최승희(가명, 이하 모두 가명) 씨는 60대 초반 엄마와 이틀에 한 번꼴로 모여 전쟁을 한다. 레퍼토리는 엇비슷하다. 최 씨는 “이젠 제발 내 맘대로 하게 내버려 두세요.”라고 호소하고, 엄마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넌 엄마 말만 들으면 돼.”라고 응수한다. 바쁜 딸을 대신해 엄마는 모든 집안일과 초등학교 두 손주의 숙제는 물론 방과후 학원까지 챙긴다. 사사건건 엄마의 간섭을 받는 최 씨의 스트레스는 몸의 징후로도 나타났다. 만성두통과

소화불량을 안고 산다.

중2 김민준 군은 하교 전 아빠의 퇴근 시간을 체크한다. 어쩌다 아빠가 일찍 퇴근한 날이면 아빠를 피해 집이 아닌 독서실로 하교한다. 이런 날은 엄마가 독서실로 아들의 저녁 도시락을 배달한다. 아빠와 아들이 부딪치지 않기 위한 교육지책이다. 둘은 한 공간에만 있으면 어김없이 싸운다. 김 군은 “내 인생은 내 것이니 자유를 달라.”고 울부짖고, 틀이 강한 아빠는 “내가 너보다 인생을 많이 살았으니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실패 안 해.”라며 호통친다. 김 군은 “왜 이런 집에 태어났는지 원망스럽다.”며 “죽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80대 후반 시아버지와 50대 중반 며느리 한지영 씨는 한 지붕 아래에서 눈도 안 마주치고 지낸다. 유교적 가풍을 중시하고 법도를 따지는 시아버지는 한 씨의 행동 하나하나가 맘에 들지 않는다. 밥상에서 자신이 먼저 일어나기 전에는 아무도 일어나서도 안 되고, 며칠 나갔다 오면 큰절로 맞이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건만 며느리는 따르지 않는다.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러고 사나요?”라며 딱딱따박 따지던 며느리는 침묵을 택했다. 둘 사이의 대화가 단절된 지는 오래다. 꼭 필요한 말이 있으면 한 씨의 남편인 아들이 전달자 역할을 한다.

출처 : 『주간조선』, 2018. 4. 6.

지난 12월 18대 대선을 계기로 세대 갈등이 첨예하게 부각됐다. 세대 간 지지 후보가 크게 달라지면서, 세대 간에 정치적 견해 차이가 단순한 차이를 넘어선 갈등으로 부각된 것이다. 더구나 인터넷에서 공공 교통 노인 무료 승차 제도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일어, 노인 세대에 대한 젊은 세대의 반감은 공공연한 현실이 됐다. 장유유서라는 유교적 사회윤리는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고, 세대 간 반목과 갈등은 눈앞에 보이는 사회갈등의 한 축으로 자리잡게 됐다.

출처 : 『나라경제』, 2013. 2.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 청년 일자리는 더 부족해질 게 분명하다. 이대로 가면 노사 간, 계층 간 갈등을 넘어 세대 간 투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나는 그리 생각한다. 힘든 세월에 태어나가 이 힘든 세상 풍파를 우리 자식이 아니라 우리가 겪은 기 참 다행이라고.” 많은 젊은이가 영화 「국제시장」 주인공 덕수의 독백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을 것이다. 하지만 “회사가 전쟁터면 밖은 지옥이다.”는 드라마 「미생(未生)」의 대사에 더 공감을 나타낸다. 젊은이들에겐 할아버지 세대의 노고에 대한 감정보다는 여전히 풍파 속에 있는 현실이 훨씬 더 절박하기 때문이다. 청년들은 미생이라도 취업하고 싶고, 완생(完生)을 꿈꾸기보다 직장에서 잘려 ‘사석(死石)’이 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출처 : 『중앙일보』, 2015. 1. 5.

다음은 김 부장(50세)과 신입 사원인 박 사원(25세)이 점심시간에 나눈 대화다.

김 부장 : 우리 박 사원은 주말에 뭘 했나?

박 사원 : 집에서 쉬었습니다.

김 부장 : 날씨 좋던데……. 집에만 있었어? 남자 친구랑 싸웠나?

박 사원 : 남자 친구 없는데요…….

김 부장 : 뭐야, 나이가 몇인데 남자 친구가 없어?

박 사원 : 네?

김 부장 : 뭐 문제 있는거 아냐?

박 사원 : 네에?!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알잘딱깔센’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이는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의 줄임말이다. 인간 관계에서 거리를 지키고 싶은 젊은 세대들은 서로의 생활이나 업무에 방해되지 않도록 적당한 선을 지키자는 의미에서 이 말을 자주 사용한다. 일과 사생활을 엄연히 분리하고 싶은 생각에서다. 선배 직장인이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 간섭한다고 느끼면 불쾌감을 드러내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 박 사원이 화를 낸 이유는 김 부장이 자신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했기 때문이다.

소통이 어려운 건 사실 선배 직장인들도 마찬가지다. ‘원 팀’ 또는 ‘가족같은’ 분위기에 적응했던 윗세대들에게 Z세대 신입 사원의 등장은 위협적이다. 근무 시간이 끝나면 주저 없이 퇴근하는 Z세대의 모습은 지나치게 개인적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김 부장이 원했던 것은 박 사원과 친해질 수 있는 대화였다. 어색한 분위기를 풀고 싶었던 김 부장은 자신도 모르게 선을 넘었다.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꽤 많다.

출처 : 『독서신문』, 2021. 10. 29.